

한국 사회복지학 연구의 분석과 과제

최 균(한림대 사회복지학과)

I. 서 론

한국에 사회복지학이 도입된 지도 1947년 이화여대에 기독교사회사업학과가 창설된 이래 약 50년이 되었다. 전문사회사업을 중심으로 도입된 사회복지학은 그동안 한국사회의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해 야기된 사회문제의 증가와 사회적 욕구의 증대에 부응하여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영역으로 연구와 교육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왔다.¹⁾ 또한 1980년대에 들어서 사회복지학과를 설치한 대학의 양적 팽창이 급속히 진행되어 1994년 12월 현재 한국사회사업(복지)대학협의회에 가입된 회원의 수도 46개교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복지학관련 전문연구자의 수도 양적으로 급증하였다.

현재 이와 같은 사회복지학 분야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학의 정체성 확립, 이론과 현실간의 괴리 등과 같은 문제들이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은 채로 존재하고 있으며, 한국적 복지모형의 정립 또한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학문으로서의 사회복지학 정립을 위해서는 학문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과학적 기준인 고유한 연구주제와 연구방법 그리고 이론체계에 관한 논의도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²⁾

한국의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지난 50년 동안의 사회복지학 연구에 대한 반성과 한국적 적용의 문제점 그리고 새로운 지향의 모색은 1980년대 후반에 와서야 일부에서 제기되었으며,³⁾ 기존의 연구성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필요성은 사회복지학 연구의 질적 발전을 위해 절실하게 요구되는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약 50년 동안 사회복지학 연구는 과연 어떠한 전개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에 도달하였으며, 사회복지학 연구의 현재 모습은 어떠한가 그리고 향후 어떠한 정향성을 지니면서 성장할 것인가에 관하여 기존 연구성과의 내용

- 1) 학과명칭이 '사회사업학과'에서 '사회복지학과'로 개칭되는 경향이나, 교과과정상의 확대·개편이 이러한 변화의 양상을 단적으로 표현한다.
- 2) 영국에서 진행된 사회행정학의 학문 정체성과 관련된 논의는 김상균, 『현대사회와 사회복지』, 서울대 출판부, 1987. pp. 77-86. 참고.
- 3) 사회복지학의 연구에 대한 반성과 관련된 글로서는 전남진, 『사회정책학강론』, 서울대 출판부, 1987. 제4부 제1장(사회복지학에 있어서 사회과학방법의 한국적 수용의 모색); 김서용, 홍경준, "사회정책학의 방법론적 과제", 『페레스트로이카의 이론과 현실』, 녹두, 1990.; 김영모, "사회복지학의 발전과 과제", 중앙대 사회복지학과편, 『한국 사회복지학의 평가』,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992.; 임종대, "한국 사회복지학의 반성", 『이론』, 제4호, 1993. 을 들 수 있다.

분석과 사회복지학 연구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분석해보고, 사회복지학 연구의 발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연구내용분석과 관련하여 한국사회복지학회가 발간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과 학회지 발간 이전에 제출된 대학원 학위논문을 분석자료로 이용하였으며, 또한 사회복지학 연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한국사회사업(복지)협회 회원명부에 수록된 204명의 교수를 대상으로 한 우편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사회복지학 연구와 관련된 전반적인 자료의 수집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II. 사회복지학 연구의 변화

: 대학원 학위논문(1979년 이전)과 학회지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학 연구의 변화를 단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사회복지학 연구의 전개과정을 3시기로 구분하였다. 시기구분의 기준으로는 학회지의 창간과 학회지의 연 2회 발간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구분기준으로서의 학회지 창간은 사회복지학 연구가 전문학술지를 발간할 정도의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며, 학회지 연 2회 발간은 사회복지학 연구의 양적 확대와 연구 잠재력의 발현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학 연구의 기간 구분은 다음과 같다.

- 제1기 : 1959년 - 1978년(석사학위논문 최초 제출시기⁴⁾ - 학회지 발간시기 전)
- 제2기 : 1979년 - 1987년(학회지 연 1회 발간시기 - 학회지 연2회 발간시기 전)
- 제3기 : 1988년 - 1994년(학회지 연 2회 발간시기 - 1994년 현재)

1. 일반사항

분석자료인 한국사회복지학회지는 총 25권(2개 학회가 존재했을 때의 학회지 포함)이며,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총 편수는 211편이었다. 또한 학회지가 발간되기 이전에 대학원에서 수여된 석사학위논문으로서 자료가 수집된 논문은 총 44편이었다(E대 32편, S대 7편, J대 3편, P대 1편, A대 1편).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총 255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한 논문기교자는 총 229명으로서, 성별로는 남성이 138명(60.3%), 여성이 91명(39.7%) 이었다. 논문기교자자의 수를 기준으로 한 연구의 형태로서는 1인 단독연구 198편(93.8%), 2인 공동연구 11편(5.2%), 4인 공동연구 1편(0.5%), 5인 공동연구 1편(0.5%) 이었다. 또한 논문기교자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4) 본 연구자의 수집자료에 의하면, 국내 대학원에서 최초로 사회복지학 관련 석사학위가 탄생한 시기는 1959년으로 파악된다(김종옥, “비행소년의 처우” 이화여대 대학원, 1959).

교수 160명(69.9%), 강사 18명(7.9%), 연구원 23명(10.0%), 대학원생 11명(4.8%), 사회복지실천분야 종사자 17명(7.4%)으로 나타났다.

2. 연구영역, 주제 및 내용의 변화⁵⁾

사회복지학 연구영역의 변화를 영역별로 각 시기에서 차지하는 논문 수와 비율을 중심으로 분석해보면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논문의 연구영역별 분포를 <표 1>에서 살펴보면, '사회복지일반' 영역 43편(16.9%), '사회사업전문직' 영역 6편(2.4%), '사회사업실천기술과 이론' 영역 65편(25.5%), '사회복지서비스' 영역 73편(28.6%), '사회복지정책 및 이슈' 영역이 68편(26.6%)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영역의 변화

(단위 : 편, %)

연구영역	제 1 기	제 2 기	제 3 기	계
사회복지일반	3 (6.8)	14 (15.9)	26 (21.1)	43 (16.9)
사회사업전문직	1 (2.3)	2 (2.3)	3 (2.4)	6 (2.4)
사회사업실천 기술과 이론	13 (29.5)	28 (31.8)	24 (19.5)	65 (25.5)
사회복지서비스	24 (54.5)	22 (25.0)	27 (21.9)	73 (28.6)
사회복지정책 및 이슈	3 (6.8)	22 (25.0)	43 (35.0)	68 (26.6)
계	44 (17.3)	88 (34.5)	123 (48.2)	255(100.0)

$$X^2=30.97017 \quad df=8 \quad P<.0001$$

* ()의 비율은 각 시기별로 연구영역이 차지하는 비율임.

사회복지학 연구영역의 변화 추이는 <표 1>에서와 같이 시기별로 뚜렷함을 알 수 있다. 즉, '사회복지일반' 영역과 '사회복지정책 및 이슈' 영역은 연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6.8→15.9→21.1, 6.8→25.0→35.1). '사회복지일반' 영역의 증가 현상은 사회복지학 연구의 관심영역이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정책 및 이슈' 영역의 확대는 한국사회에서의 사회보장제도 완비에 따른 사회복지정책의 연구 필요성 증가와 사회적 욕구의 증대에 대한 제도적 접근의 필요성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반면, '사회사업전문직' 영역은 거의 변동이 없으며, '사회사업실천기술과 이론'

5) 연구영역의 구분은 NASW에서 발간되는 *Social Work* 잡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매년 간행되는 『종합서지』의 분류를 참고로 하여 제작성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NASW, *Social Work : research & abstracts*, Vol. 29., No. 4, 1993, Dec. 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종합서지-인구, 보건, 사회』, 1994. 참고.

영역은 제3기에 들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29.5→31.8→19.5),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54.5→25.0→21.9). 이러한 현상은 ‘사회복지일반’ 영역과 ‘사회복지정책 및 이슈’ 영역의 확대에 따른 연구활동과 관심의 상대적 감소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 연구의 각영역별 연구주제의 변화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를 살펴보면, 우선 ‘사회복지일반’ 영역에서는 일반연구와 사회복지종사자에 관한 연구 그리고 사회복지철학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반연구의 증가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인한, 사회복지 장기전망, 사회복지 수요 예측, 삶의 만족, 복지의식, 자원봉사 등과 같은 연구주제로의 관심영역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며, 사회복지전문가에 관한 연구의 증가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배출과 함께 사회복지실무자들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철학 연구의 증가는 다양해지는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사회복지철학 정립에 관한 인식의 폭이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사회사업전문직’ 영역의 연구는 그리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조직과 기구에 대한 관심이 제3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회사업의 전문직화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사업실천 기술과 이론’ 영역의 경우 제1기에서 지역사회조직(발달)론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영향을 받아 지역사회조직(발달)론과 관련된 분야로의 관심이 확대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가족치료에 관한 연구가 제2기와 제3기에 들어 급증하고 있는 현상은 최근 사회사업실천 분야에서의 관심분야를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사회사업실천 기술과 이론에 관한 이론/개념들의 개발 연구가 연구영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사회사업실천과 관련된 학문적 이론이나 지식이 미국 사회사업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은 사회복지학 연구의 고유한 영역으로 설정할 수 있을 정도로 지속적인 관심영역이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회복지학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주된 관심영역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도 아동과 가족복지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에 관련된 연구의 증가는 한국사회의 산업화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욕구의 해결노력 증대와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경향이 반영되었다고 하겠다. 산업복지 관련 연구가 제2기에서 급증하고 있는 현상은 1987년 노동자대파업 이후 산업복지영역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의 증가는 이 분야가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의 새로운 관심분야임을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사회복지정책 및 이슈’ 영역은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가장 급성장한 분야이다.

<표 2> 연구영역별 연구주제 분포

(단위 : 편, %)

구분	주 제	제 1 기	제 2 기	제 3 기	계
사회 복지 일반	일반	2 (4.5)	3 (3.4)	11 (8.9)	43 (16.9)
	역사	-	2 (2.3)	2 (1.6)	
	사회복지전문가 철학	-	2 (2.3)	8 (6.5)	
	교육	1 (2.3)	5 (5.7)	-	
사회 사업 전문 직	일반	-	1 (1.1)	-	6 (2.4)
	윤리와 가치	1 (2.3)	-	1 (0.8)	
	조직과 기구 전문성확립	-	-	2 (1.6)	
사회 사업 실천 기술 과 이론	사회복지행정/관리	-	3 (3.4)	2 (1.6)	65 (25.5)
	개별지도/정신치료	3 (6.8)	4 (4.5)	1 (0.8)	
	집단지도/치료	4 (9.1)	5 (5.7)	5 (4.1)	
	지역사회조직(발달)론	6 (13.6)	6 (6.8)	4 (3.3)	
	가족치료	-	5 (5.7)	8 (6.5)	
	수퍼비전 이론/개념틀 개발	-	-	1 (0.8)	
사회 복지 서비 스	노인복지	1 (2.3)	4 (4.5)	5 (4.1)	73 (28.6)
	아동복지	13 (29.5)	6 (6.8)	8 (6.5)	
	가족복지	2 (4.5)	3 (3.4)	4 (3.3)	
	교정복지	-	-	1 (0.8)	
	장애인복지	2 (4.5)	1 (1.1)	4 (3.3)	
	정신건강	1 (2.3)	2 (2.3)	3 (2.4)	
	산업복지	-	4 (4.5)	1 (0.8)	
	약물남용/중독	2 (4.5)	1 (1.1)	-	
	여성복지	1 (2.3)	1 (1.1)	1 (0.8)	
	부랑아복지	2 (4.5)	-	-	
학교사회사업	-	-	-		
사회 복지 정책 및 이슈	일반	-	6 (6.8)	6 (4.9)	68 (26.6)
	빈곤문제/정책	1 (2.3)	1 (1.1)	4 (3.3)	
	사회복지입법	-	-	3 (2.4)	
	농촌복지/정책	-	-	2 (1.6)	
	도시빈민지역문제	-	-	1 (0.8)	
	노동자문제/정책	1 (2.3)	-	3 (2.4)	
	생활보호사업/사회부 조	-	3 (3.4)	-	
	의료보장(보험)제도	1 (2.3)	1 (1.1)	6 (4.9)	
	노령(국민)연금제도	-	4 (4.5)	5 (4.1)	
	사회복지행정체계	-	-	2 (1.6)	
	이론/개념틀 개발	-	7 (8.0)	12 (9.8)	
	계	44(100.0)	88(100.0)	123(100.0)	

* ()의 비율은 각 시기의 연구들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이와 같은 성장은 사회복지정책 분야와 관련된 연구자의 증가와 함께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사회적 욕구의 증대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제2기에 사회복지정책 일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제3기에 접어들어서 폭발적인 '사회복지정책 및 이슈' 영역의 성장과 확대를 결과하였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성장은 사회복지정책 분야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연구영역의 확대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복지정책 및 이슈' 영역에서는 사회복지입법, 노동자문제, 농촌복지 그리고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확립과 관련된 사회복지행정체계에 관한 연구가 제3기에 와서 진행되었으며, 제2기에서의 생활보호사업에 대한 관심분야가 제3기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빈곤문제와 정책분야로 변화되었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겠다. 또한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된 이론/개념들 개발 노력의 증대는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전국민의료보험 실시에 따라 의료보험분야에 관한 연구가 제3기에 증가하였고, 노령연금 분야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임을 알 수 있다.

3. 연구내용의 변화

연구내용상의 변화에서도 시기별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표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⁶⁾ <표 3>에서 이와 같은 변화를 살펴보면, 외국의 사회복지학 이론, 방법 그리고 실제에 관한 소개와 관련된 논문은 46.6% → 22.8%로 감소한 반면에, 사회복지이론의 한국적 적용과 관련된 논문과 한국 사회복지문제를 중심으로 연구한 논문이 각각 11.4% → 27.6%, 42.0% → 49.6%로 증가하고 있다.

<표 3> 연구내용의 변화 (N=211)

연구 내용	제 2 기	제 3 기	계
이론, 방법, 실제의 소개	41 (46.6)	28 (22.8)	69 (32.7)
이론의 한국적 적용	10 (11.4)	34 (27.6)	44 (20.9)
한국사회 대상 연구	37 (42.0)	61 (49.6)	98 (46.4)

$$X^2=16.05377 \quad df=2 \quad P<.0001$$

* ()의 비율은 각 시기의 연구들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이와 같은 현상은 제2기에서의 외국 이론이나 방법 그리고 실제를 직접적으로 도입하는 단계를 벗어나서, 제3기에서는 한국의 사회복지문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한국사회의 사회복지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증대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6) 제1기는 연구내용을 직접 검토할 수 없어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4. 연구방법의 변화

연구방법의 변화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구방법의 변화추이를 <표 4>에서 살펴보면, 2차자료분석을 통한 분석적 연구는 10.2% → 14.6%로 다소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사회조사방법을 이용한 통계적 연구는 19.3% → 43.1%, 비교연구방법을 이용한 연구는 33.3% → 66.7%로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증주의적인 연구경향의 확대와 사회복지학 연구방법으로서의 비교방법에 관한 소개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한편, 문헌연구방법을 중심으로 이론연구는 55.7% → 29.3%, 사례연구방법과 역사적 연구방법을 이용한 연구는 각각 4.5% → 2.4%, 5.7% → 3.3%로 다소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표 4> 연구방법의 변화 (N=211)

(단위 : 편, %)

연구 방법	제 2 기	제 3 기	계
문헌연구방법	49 (55.7)	36 (29.3)	85 (40.3)
분석적 연구방법	9 (10.2)	18 (14.6)	27 (12.8)
사회조사통계방법	17 (19.3)	53 (43.1)	70 (33.2)
사례연구	4 (4.5)	3 (2.4)	7 (3.3)
역사적 방법	5 (5.7)	4 (3.3)	9 (4.3)
사회문화적 접근	0 (0.0)	1 (0.8)	1 (0.5)
비교연구방법	4 (33.3)	8 (6.5)	12 (5.7)

$X^2=20.85085$ df=6 P<.0001

* ()의 비율은 각 시기의 연구들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III. 사회복지학의 연구분위기에 관한 평가

사회복지학의 연구분위기에 관한 일반적인 평가를 개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우편조사방법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한국사회사업(대학)협의회 회원명부에 수록된 총 204명(남자 146명-71.6%, 여자 58명-28.4%)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 중 109명이 응답하여 설문지 회수율은 53.4%였다.

1. 일반사항

설문응답자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자 73명(67.0%), 여자 36명(33.0%)이었다.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는 30세 이하가 1명(0.9%), 31-35세 이하 6명(5.5%), 36-40세 이하 38명(34.9%), 41-45세 이하 20명(18.3%), 46-50세 이하 15명(13.8%), 51-55세 이하 13명(11.9%), 56-60세 이하 12명(11.0%), 61-65세 이하 4명(3.7%)이었으며, 평균연령은 약 47세로 추정되었다.

응답자들의 재직기간을 보면, 5년 이하 43명(39.4%), 5.1-10년 이하 29명(26.7%), 10.1-15년 이하 18명(16.5%), 15.1-20년이하 12명(11.0%), 20년 이상 7명(6.4%)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재직연령은 약 8.9년이었다.

응답자의 전공은 사회복지일반 33명(31.4%), 사회복지정책 36명(34.3), 임상사회사업 36명(34.3)으로 나타났다.

최종학위전공은 사회복지(사업)학이 89명(82.4%), 경제학 2명(1.9%), 사회학 9명(8.3%), 법학 1명(0.9%), 교육학 5명(4.6%), 행정학 2명(1.9%)으로 나타났다.

학위소지별 분포를 보면 박사학위소지자가 85명(78.0%), 석사학위소지자 24명(22.0%)이었으며, 최종학위 취득지는 국내가 59명(54.1%), 국외 50명(45.9%)이었다. <표 5>에는 응답자의 최종학위와 학위취득지가 제시되어 있다.

<표 5> 최종학위와 학위취득지 분포

(단위 : 명, %)

구 분	석 사	박 사	계
국 내	18 (16.5)	41 (37.6)	59 (54.1)
국 외	6 (5.5)	44 (40.4)	50 (45.9)
계	24 (22.0)	85 (78.0)	109 (100.0)

2. 사회복지학의 향후 중점과제

향후 사회복지학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연구분야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사회복지이론개발'이 16명(16.8%),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된 정책대안제시와 분석'이 24명(24.2%),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기법의 개발과 현장분석'이 58명(58.9%)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실천분야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전공영역별로 제시한 향후 중점과제에 관한 분포는 <표 6>과 같다.

<표 6> 전공영역별 사회복지학 증점과제 분포

(단위 : 명, %)

전공 항 후 과 제	사회복지일반	사회복지정책	임상사회사업	계
사회복지이론개발	3 (9.4)	11 (33.3)	2 (6.7)	16 (16.8)
사회복지정책 대안 제시와 분석	5 (15.6)	18 (54.5)	0 (0.0)	23 (24.2)
사회복지실천 기법 개발과 현장분석	24 (75.0)	4 (12.1)	28 (93.3)	56 (58.9)
계	32 (100.0)	33 (100.0)	30 (100.0)	95 (100.0)

$X^2=48.70424$ df=4 P<.0001

* ()의 비율은 각 전공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3. 학회지 수준에 관한 평가

현재 학회에서 발간되고 있는 학회지의 수준에 관한 평가를 분석해보면, <표 7>에서와 같이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67명(61.5%)으로 가장 많았으며, '낮은 수준이다'라고 평가한 응답이 27명(24.8%)를 차지하여 '높은 수준이다'라고 평가한 응답 15명(13.8%) 보다 다소 많게 나타났다.

<표 7> 학회지 수준에 관한 평가

(단위 : 명, %)

평 가 내 용	빈 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3 (2.8)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12 (11.0)
보통 수준이다	67 (61.5)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24 (22.0)
매우 낮은 수준이다	3 (2.8)
계	109 (100.0)

4. 연구분위기에 대한 평가

사회복지학 연구분위기의 만족도에 관한 평가는 <표 8>에서와 같이 '보통이다'

라는 응답이 45명(42.1%)로서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불만스럽다'는 응답이 42명(39.2%)이 '만족스럽다'는 응답 20명(18.7%) 보다 높게 나타났다.

타학문분야와의 비교를 통한 연구분위기 평가에서도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51명(47.2%), '불만스럽다'는 응답이 42명(38.9%), '만족스럽다'는 응답이 15명(13.9%) 으로 나타났다.

<표 8> 연구분위기에 대한 평가

(단위 : 명, %)

평 가 내 용	일반적 분위기	타학문 분야 비교
매우 만족한다	1 (0.9)	1 (0.9)
만족스러운 편이다	19 (17.8)	14 (13.0)
보통이다	45 (42.1)	51 (47.2)
불만스러운 편이다	38 (35.5)	37 (34.3)
매우 불만이다	4 (3.7)	5 (4.6)
계	107 (100.0)	108 (100.0)

5. 학문적 난이도에 대한 평가

타학문과의 비교를 통한 사회복지학 연구의 학문적 난이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표 9>에서와 같이 '비슷하다' 50명(45.9), '어려운 편이다'가 31명(28.5%), '쉬운 편이다'가 28명(25.7%), 로 나타났다.

<표 9> 학문 연구의 난이도에 대한 비교 평가

(단위 ; 명, %)

평 가 내 용	빈 도
매 우 쉽 다	0 (0.0)
쉬 운 편 이 다	28 (25.7)
비 슷 하 다	50 (45.9)
어 려 운 편 이 다	28 (25.7)
매 우 어 렵 다	3 (2.8)
계	109(100.0)

6. 연구관련 부분에 대한 평가의 집단별 비교

이상에서 살펴본 조사결과들을 종합하여 학회지에 대한 평가, 일반적인 연구분

위기 평가, 타학문분야와의 비교를 통한 연구분위기 평가 그리고 타학문분야와의 비교를 통한 사회복지학 연구의 난이도 정도를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집단별로 비교해 보았다.

응답자의 성별, 학위별, 학위취득지별로 사회복지학 연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평가들을 t-TEST를 통하여 비교한 결과가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표 10>에서 보면, 이들 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10> 성별, 학위별, 학위취득지별 사회복지학 연구부분 평가 비교

집단구분	학회지 평가	일반 연구분위기	연구분위기 비교	연구난이도 비교
남 자	3.0822(-.58)	3.3099(1.32)	3.3288(.75)	3.0959(.76)
여 자	3.1714	3.0857	3.2057	2.9714
석 사	3.0833(-.21)	3.3478(.74)	3.2917 (.01)	3.0417(-.10)
박 사	3.1190	3.2048	3.2892	3.0595
국 내	3.0172(-1.43)	3.2105(-.34)	3.2281(-.86)	3.0172(-.54)
국 외	3.2200	3.2653	3.3600	3.1000

한편, 연령별, 재직기간별, 전공별로 사회복지학 연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평가들을 ANOVA를 통하여 비교한 결과가 <표 11>, <표 12>, <표 13>에 각각 나타나 있다.

우선 연령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회지에 대한 평가와 일반 연구분위기 그리고 학문 연구의 난이도에 대한 평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낮은 40세 이하 집단은 타집단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학회지의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며, 일반적인 학문의 연구분위기가 불만스럽다고 평가하였다($P < .05$). 또한 40세 이하 집단은 사회복지학 연구의 난이도가 타학문에 비하여 쉬운 편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P < .01$).

<표 11> 연령별 사회복지학 연구부분 평가 비교

집 단 구 분	학회지 평가	일반연구분위기	연구분위기 비교	연구난이도 비교
40세 이하	3.3333 (45)	3.4667 (45)	3.4222 (45)	2.7778 (45)
41-50 이하	3.0286 (35)	3.2059 (34)	3.3235 (34)	3.2286 (35)
51세 이상	2.8621 (29)	2.8929 (28)	3.0345 (29)	3.2759 (29)
전 체 평 균	3.1101(109)	3.2336 (107)	3.2870 (108)	3.0550 (109)
F 값	4.1481*	4.5466*	2.2507	5.0881**

* $P < .05$ ** $P < .01$

재직기간별로 집단을 구분하여 사회복지학 연구 부분에 관한 평가를 비교한 결과가 <표 12>에 나타나 있다. <표 12>에서와 같이 학문적 난이도에 대한 평가에서만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직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고 할 수 있는 10년 이하 재직자들이 상대적으로 타집단에 비하여 사회복지학 연구의 난이도가 타학문분야에 비하여 쉬운 편이라고 평가하였다($P < .01$).

<표 12> 재직기간별 사회복지학 연구부분 평가 비교

집 단 구 분	학회지 평가	일반연구분위기	연구분위기 비교	연구난이도비교
5년 이하	3.2326 (43)	3.3488 (43)	3.3256 (43)	2.8605 (43)
5.5-10년 이하	3.2414 (29)	3.2857 (28)	3.3448 (29)	2.8966 (29)
10.5-15년 이하	2.8889 (18)	3.3529 (17)	3.2353 (17)	3.5000 (18)
15.5년 이상	2.8421 (19)	2.7895 (19)	3.1579 (19)	3.3158 (19)
전체 평균	3.1101(109)	3.2336 (107)	3.2870 (108)	3.0550 (109)
F 값	2.1460	2.3932	.2765	4.1752**

** $P < .01$

전공별로 사회복지학 연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평가를 비교해본 결과가 <표 13>에 제시되어 있다. <표 13>에서와 같이 전공별 집단구분을 통한 비교에서는 타학문분야와 비교한 사회복지학 연구의 난이도에서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미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사회복지정책을 전공하는 연구자들은 타전공집단에 비하여 사회복지학 연구의 난이도를 타학문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낮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표 13> 전공별 사회복지학 연구부분 평가 비교

집 단 구 분	학회지 평가	일반 연구분위기	연구분위기 비교	연구난이도 비교
사회복지일반	3.2188 (32)	3.1563 (32)	3.2813 (32)	3.2188 (32)
사회복지정책	3.1667 (36)	3.4444 (36)	3.3333 (36)	2.7500 (36)
임상사회사업	2.9143 (35)	3.0571 (35)	3.2000 (35)	3.2000 (35)
전 체 평 균	3.0971 (103)	3.2233 (103)	3.2718 (103)	3.0485 (103)
F 값	1.6460	2.1425	.2575	4.2707*

* $P < .05$

IV. 결 론 : 사회복지학 연구의 향후 과제

한국사회에 사회복지학이 도입된 이후 사회복지학 연구의 변화추이를 시기구분하여 연구영역과 연구주제, 연구내용 그리고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으며, 사회복지학 연구 관련 부분에 대한 전문연구자들의 평가도 분석해 보았다. 이상의 분석에서 최근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사회적 욕구의 증대에 따라 사회복지일반과 사회복지정책 분야의 연구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연구주제도 과거보다 훨씬 다양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의 내용도 외국의 이론과 방법의 소개보다는 사회복지이론의 한국적 적용과 한국사회의 사회복지문제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설정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을 때, 과거 외국편향적이었던 학문풍토가 한국사회의 사회복지문제의 해결에 관심을 두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방법에서도 문헌연구방법보다는 분석적 연구방법과 사회조사통계방법 그리고 비교연구방법을 이용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복지학 연구에서 실증주의적 접근의 증대와 연구방법의 새로운 탐색 노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복지학 연구와 관련된 부분의 평가에서는 사회복지실천분야를 강조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학회지의 수준과 연구분위기에 관한 평가에서는 대부분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실세계의 변화가 학문의 이론적 발달과 학문적 관심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였을 때, 한국사회에서 사회복지부문의 현실적 여건과 연구배경이 최적의 성장조건하에 존재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복지학 연구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우선 가장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가 바로 한국적 사회복지학의 정립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문화적 토대가 상이한 학문의 이입과 이로 인한 학문의 현실적합성과 정체감의 혼란은 사회복지학 연구분야에서 극복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상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학문 연구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즉, 기술과 제도 중심의 연구경향을 극복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영역의 확대와 즉각적인 대응 그리고 적극적인 실천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사회복지학 연구영역과 주제가 과거에 비해 다양화되고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현실적 요구에 대해서 너무 협소하고 소극적인 견해와 관점을 견지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따라서 보다 확장된 연구영역의 개발과 실천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사회복지문제와 관련된 한국사회의 구조적 분석이 부족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기능주의적인 접근과 실용주의적 입장의 견지가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의 학문적 접근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회복지부문에 관한 보다 거시적 관점에

서의 조망에 일정한 한계로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학문적 입장의 특성은 사회복지학의 이데올로기적 정향에 관한 사회과학계의 평가에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더욱이 이러한 평가는 한국 사회과학계 내에서의 사회복지학 위상을 고립시키는 양상으로 발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도 관련되어 있다.

네째로 학문의 과학성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사회복지학이 내포하고 있는 규범적 성격과 국가에 대한 맹신, 사회적 합의의 가정, 실용주의적 입장으로 인한 학문의 이론적 체계화 노력의 미흡 등과 같은 문제는 지양되고 극복되어야만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회복지학의 연구방법론에 관한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연구의 한계로 존재하며, 앞으로 사회복지학 연구성과의 질적 분석과 함께 연구방법론에 관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